

입시의 보석 ‘제2외국어’ … 개인별 활용 전략에 맞게 준비해야

이번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제2외국어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제2외국어는 서울대학교 최저 2등급 충족 등에만 활용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수 대학의 제2외국어 교체 허용을 잘 활용하면 수능 당일 소위 말하는 ‘구멍 난’ 사탐 점수를 만회하는 등 제2외국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석 같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사탐 한 과목의 점수가 부족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제2외국어를 보험 성격으로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자연계열의 경우 응시는 가능하나 수시, 정시에서 활용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고 제2외국어를 누구나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외국어는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능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2외국어는 수업 중에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2외국어를 준비한다고 해서 탐구 2과목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 투자와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상층 학생의 경우 입시에서 제2외국어를 잘 활용한다면 입시에서 아주 유용한 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고민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제2외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2외국어 반영 대학별 특징, 제2외국어 반영 방식(추상적, 구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국민대, 한국교원대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였으나 2018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는 탐구 과목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및 한문 과목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불가능 하지만, 정시로 입학할 경우 제2외국어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사탐 두 과목(한국사 제외)과 제2외국어 한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정시에서는 3등급부터 1점씩 감점되었으나 2018학년도 정시에서는 3등급부터 0.5점으로 감점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 수시 지역 균형에서도 제2외국어를 필수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시에 서울대학교,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단국대, 광운대, 송실대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2외국어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하여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입시요강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은 아니지만 응시하였을 경우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의 탐구과목으로 인정하여, 총 3개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점수를 탐구영역 점수로 반영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시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탐구 또는 사탐 중 한 과목을 대체하거나 해당 언어와 관련이 있는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대학마다 전형별, 영역별, 과목별로 세분화되었는데, 이는 아랍어를 의식하여 대학 입학처들이 마련한 대안책이라 판단됩니다. 수험생들은 이에 맞춰 전략적인 입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여 대학별로 반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대학	모집시기	반영 내용(적용 전형/적용 방식) - 수시
건국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경희대	수시	논술: 사탐 1개 대체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 필수 응시, (제외: 간호대/ 미술대/ 체육교육/ 음악대)
서울여대	수시	교과우수자/논술: 탐구 1개 대체
성균관대	수시	논술/ 고른 기회./ 농어촌/ 이웃사랑/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고졸업자(자연계포함): 탐구1개 대체
이화여대	수시	논술/ 미래인재: 탐구 1개 대체
중앙대	수시	논술/ 학생부교과: 사탐 1개 대체
한국외대	수시	학생부교과/ 논술: 사탐 1개 대체
인하대	수시	학생부교과: 사탐 1개 대체, 일반/실기. 특성화고졸업자 (인문/예체능계열): 사탐 1개 대체
전북대	수시	일반(교과): 해당 언어로 사탐 1개 대체, 독일학/ 스페인중남미학/ 프랑사아프리카학/ 일문학/ 중문학과
공주대	수시	학생부교과(자연/예체능 포함): 탐구 1개 대체
부산대	수시	논술/학생부교과/학생부 종합 I /학생부종합 II(한의전): 사탐 1개 대체
영남대	수시	교과(일반/ 면접/ 농어촌): 탐구 1개 대체, 중국언어문화학(한문/ 중국어),일문학(일본어), 유럽언어문화학(프랑스어/ 독일어),한문교육과(한문/ 중국어)
강원대	수시	교과우수자/지역인재(교과): 탐구 1개 대체
한국 항공대	수시	교과 성적 우수자/ 특성화고출신자: 사탐 1개 대체

대학	모집시기	반영 내용(적용 전형/적용 방식) _ 정시
건국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경희대	정시	일반: 사탐 1개 대체
광운대	정시	일반/농어촌: 사탐 1개 대체
단국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죽전: 인문계열/건축학/체육교육, 천안: 외국어대
동국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인문계열/ 체육교육/ 영화 영상학/ 미술학/ 연극학
서울대	정시	일반: 감점 적용(3등급부터 0.5점씩 감점) / (제외: 간호대/미술대/체육교육/음악대)
서울 시립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연세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연세대(원주)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성균관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한국외대	정시	일반/농어촌/기초차상위: 사탐 1개 대체
한양대	정시	일반/농어촌/기회균형/특성화고졸업자/특수교육: 사탐 1개 대체, 일반: 사탐 1개 대체
이화여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중앙대	정시	일반/동일계/실기/고른 기회: 사탐 1개 대에
숙명여대	정시	일반(의류학 포함): 사탐 1개 대체
송실대	정시	일반(인문/경상계열): 아래의 언어로 사탐 1개 대체,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한문 등 5개 과목에 한해 대체 가능
단국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인제대	정시	일반/수능우수자(의예과 제외 전체): 탐구 1개 대체
인천대	정시	수능우수자(동북아국제통상학): 탐구 1개 대체
전남대	정시	일반(인문대): 사탐 1개 대체
전북대	정시	일반: 사탐 1개 대체(학과/언어: 수시와 동일)
조선대	정시	일반(외국어대): 취득 백분위 점수의 5% 가산점
서울여대	정시	일반(인문사회계): 사탐 1개 대체
창원대	정시	일반(인문대): 탐구 1개 대체
충남대	정시	일반(아래 학과): 취득 표준점수의 2% 가산점, 영문학/독문학/불문학/중문학/일문학/한문학
한남대	정시	일반(의류학 포함): 탐구 1개 대체
성공회대	정시	일반(어학계열): 탐구 1개 대체
한림대	정시	일반(아래 학과 해당 언어): 탐구 1개 대체, 일문학(일본어), 중국학(중국어), 러시아학(러시아어)
한양대(에리카)	정시	일반/농어촌/기회균형/특성화고졸업자/특수교육: 사탐 1개 대체
강원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동서대	정시	일반/실기: 탐구 1개 대체
부산대	정시	일반: 해당 언어로 취득한 표준점수의 5% 가산점, 중문학, 일문학, 불문학, 불어교육/독문학/독어교육/노문학/한문학
부산외대	정시	일반(자연계 포함): 탐구 1개 대체
삼육대	정시	일반(전체 모집단위): 구 1개 대체
서경대	정시	일반(전체 모집단위): 탐구 1개 대체
공주대	정시	일반: 탐구 1개 대체
경북대	정시	일반(인문대): 탐구 1개 대체, 독어교육/불어교육 : 해당 언어로 탐구 1개 대체(독일어, 프랑스어)